



'로빈후드'의 주인
공 러셀 크로우

거물 감독+스타들 大作 출줄이

■ 올해 개봉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아바타'가 7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외화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울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올해도 다양한 소재의 할리우드산(産) 블록버스터가 개봉을 준비중이다. 대부분의 작품이 스타 감독과 톱 스타들이 대가 참여한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영화팬들의 기대치도 그만큼 높다.

액션·시대극·애니메이션 다양한 장르

2월 개봉하는 '엣지 오브 다크니스'는 '007 카지노 로얄'의 마틴 캠벨 감독과 멜깁슨이 손잡은 액션 블록버스터다. 딸의 죽음이 국가 기밀과 연류돼 있음을 알게 된 강력계 형사가 딸의 복수를 위해 거대한 음모 세력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마틴 스콜세시 감독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만난 '셔터 아일랜드'는 '미스틱 러버'로 유명한 데니스 러예인의 소설 '살인자의 삶'을 각색한 작품이다. 보스턴의 한 정신 병원에서 벌어진 탈옥사건과 이를 수사하는 연방 보안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지난해 최고 인기작 중 하나였던 '아이언맨' 시리즈의 두번째 이야기인 '아이언맨 2'도 4월 개봉한다. 전권과 마찬가지로 로버트 다우 주니어가 주연으로 출연하며 새롭게 가세한 스칼렛 요한슨을 비롯해, 에드워드 노튼, 미키 루크, 사무엘 잭슨 등 출연진의 면모가 화려하다.

'가위손', '찰리와 초콜릿 공장', '스위니 토퍼' 등을 함께 만든 할리우드의 '환상의 콤비' 팀 버튼과 조니뎁은 '이상한 나라의 앤리스'로 관객을 찾아온다. 원작의 어린 소녀가 아닌 17세가 된 앤리스가 벌이는 모험 이야기로 '아바타'와 마찬가지로 3D로 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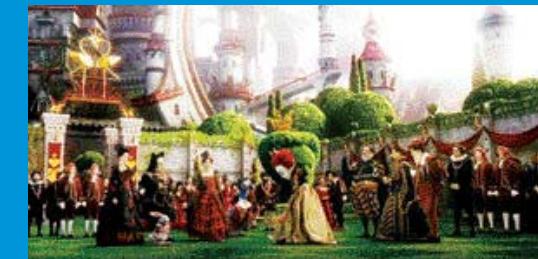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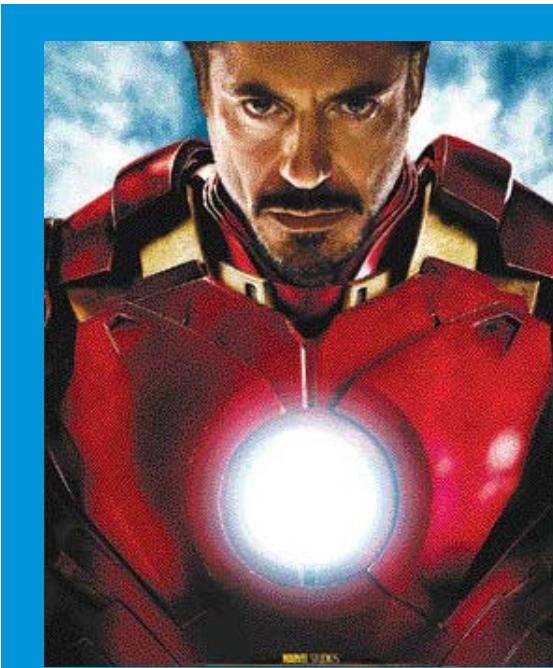
조니 뎅·멜깁슨·디카프리오 등 총출동

평범한 남자 로빈 후드가 백성을 구하는 영웅으로 거듭나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액션 드라마 '로빈후드'는 할리우드 거장 리더리 스콧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주인공으로는 리더리 스콧 감독의 '글래디에이터'에서 열연했던 러셀 크로우가 출연하며 케이트 블랑쳇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11월에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지막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가 개봉된다. 특히 이번 시리즈에서는 성인이 된 엠마 워슨(헤리미온느 역)과 다니엘 래드클리프(해리포터 역)의 노출 연기가 등장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2부는 2011년 개봉한다. 그밖에 니콜라스 케이지, 카메론 디아즈가 출연하는 슈퍼 히어로 영화 '그린 홀넷', '다크나이트'의 크리스토퍼 놀란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손을 잡은 SF 스릴러 '인셉션'도 기대작이다.

애니메이션 속편들도 개봉 대기중이다. 동화를 유쾌하게 비틀어 성인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슈렉' 시리즈의 네번째 이야기인 '슈렉 포에버'는 전권과 달리 3D로 제작,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전달한다. 또 2편 개봉 후 11년만에 다시 관객을 찾아오는 '토이스토리 3'은 대학생이 된 앤디가 장난감인 우디와 버즈를 버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그밖에 마법의 성에서 탈출한 리준젤의 뒷 이야기를 그린 '리준젤'도 3D로 제작돼 관객들을 만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위로부터 '아이언맨 2' '이상한 나라의 앤리스' '엣지 오브 다크니스'

새 영화 용서는 없다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시체에 남겨진 단서를 추적해야 하는 부검의와 연쇄 살인을 예고하는 비밀을 간직한 살인마의 괴할 수 없는 대결을 그린 스릴러물.

과학수사대 최고의 실력과 부검의 강민호 교수는 유일한 가족인 딸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을 정리하던 중 마지막 사건을 의뢰 받는다.

부검의·살인마

딸 목숨 담보

숨막힌 스릴러

뛰어난 추리력과 행동력을 지닌 열혈 여행사 민서영의 추리로 응의자는 환경운동가 이성호로 암죽된다.

민서영과 강력반 형사들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강민호의 딸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 한다. 딸의 실종에 이성호가 관계되어 있음을 알게 된 강민호에게 이성호는 자신이 시체에 남긴 단서와 비밀을 알 아낸다면 딸을 살려줄 수 있다며 위험한 거래를 제안한다.

설명이 필요 없는 연기파 배우 설경구가 강민호 역을 맡았으며 류승범과 한혜진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18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227-8940
호선전 061-752-9940
제포점 061-262-9200
충장점 062-227-8970
학산점 063-851-2422

국제보청기

국제보청기 쓰십시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227-8940
호선전 061-752-9940
제포점 061-262-9200
충장점 062-227-8970
학산점 063-851-2422

국제보청기 쓰십시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227-8940
호선전 061-752-9940
제포점 061-262-9200
충장점 062-227-8970
학산점 063-851-2422

국제보청기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쓰십시오